

先人들의 書寫指導

李 應 百*

머 리 말

周禮地官 大司徒에 「六藝, 禮樂射御書數」라 하여, 書를 六藝의 하나로 쳤고, 唐書 選舉志에는 擇人之法에 書 곧 글씨를 그 하나로 포함시켰다.

凡擇人之法有四, 一曰身, 言體貌豐偉, 二曰言, 言言辭辯正, 三曰書, 言楷法遒美, 四曰判, 言文理優長, 四事皆可取.

楷法이란 楷書 곧 正書인데, 그것이 힘차고 아름다와야 한다는 것이다. 위'引用文에서 由來한 이른바 「身言書判」이란 말은 그 뒤로 쓸 만한 사람을 판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 오기도 한 것이다.

글씨가 이만큼 소중하였기에 高麗時代의 教育課程에는 하루에 한 장씩 꼭 글씨를 쓰도록 정식으로 이를 포함시켰다.¹⁾ 朝鮮朝의 教育課程에는 이것이 따로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이미 習慣化하여 따로 明文化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리라. 이렇게 글씨쓰기를 권장한 결과는 後世에 文集을 남긴 與否와는 관계없이 文武를 가리지 않고 글줄이나 쓰는 이들은 다 어느 水準 이상으로 글씨를 쓰게 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글씨는 엄연히 국민 학교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그 지도는 거의 안 이루어져 基礎基本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自己流의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이다. 글씨를 學業成績評價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選多型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客觀式 考查法의 變衍은 극단의 경우 국어과의 答案紙에서도 글씨 아닌 符號의 사용만으로 족한 異常風潮를

* 師大 教授(國語學專攻)

1) 高麗史 卷七十四 選舉二 學校條에 「有暇兼須習書日一紙」라 했다.

빚어내어, 글씨의 無意圖的이요 자연스러운 지도의 기회마저도 잃어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近者 一教科目 一教科書 주의라는 國語教科로서는 有史以來 처음 당하는 제도의 設定으로, 그간 文教當局이 마련하여 教師의 誠實한 지도만 분따르면 얼마든지 글씨쓰기의 成果를 올릴 수 있었던 국민 학교 「쓰기」교본이 내년도부터는 아주 없어지게 되고 보면, 이 글씨 문제는 앞으로 더욱 陷濟할 뿐이다.

한편 現行 교육과정에서는 毛筆 글씨는 美術科에 소속되어 있어 實用性보다도 藝術性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이 毛筆글씨를 실제로 쓰이는 學校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보면, 정식적인 글씨 지도는 앞으로는 더욱 不毛化의 公算이 크다고 하겠다.

或者是 打字機와 電算機가 더욱 발달하고 무서운 속도로 普及이 되어 가는데, 굳이 손으로 쓰는 연습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할지 모르나, 기제가 아무리 편리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 쉽사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글씨는 實用的인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練習을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藝術의 境域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意圖的인 지도를 強化할 필요가 있다.

現行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글씨에 대하여 正速美²⁾를 指向하여 정성껏 쓸 것³⁾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 글씨쓰기에 대한 마음가짐은 先人들에게서 더욱 철저한 面貌를 들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先人들이 글씨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으며, 그 功效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一瞥함으로써 先人들의 書寫指導 전반에 걸친 大綱을 파악, 現代에 살릴 만한 요소를 길어 낼 수 있는 源泉이 되게 하자는 것이 이 글의 목표가 되겠다.

-
- 2) 現行 중학교 국어科 교육과정 다. 지도상의 유의점 (13) 글씨쓰기는 바르고 빠르고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現行 국민 학교 국어科 교육과정
 가. 목표 (2) 학년 목표 <제2학년>
 다. ……정성껏 글씨를 쓸 수 있게 한다.

1. 私塾에서의 習字

글씨는 私塾에서 매일 쓰였다. 이러한 사정은 中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習字在學塾亦最重要，但兒童無知，與講筆法，懵然不解，故教師須扶手潤字，迨其輕重轉折，粗粗具體，方令脫手自書。怠惰的教師，扶手教書者甚少。往往只令其描寫紅字，如宋代相傳之「上大人，孔夫子」之類。⁴⁾

教師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 붓 돌아가는 要領을 터득시키는가 하면, 紅模子(본보기 글씨를 붉은 빛으로 찍어 놓은 종이)의 붉은 글씨 위에 흰 종이를 대고 먹을 묻힌 붓으로 덧써가게 했는데,⁵⁾ 그 教本으로는 宋代부터 전해 내려오는 「上大人，孔夫子」같은 획이 적어 쓰기 쉬운 것을 사용했다.⁶⁾ 그때의 글씨의 크기는 一寸二分⁷⁾ 내지 一寸五分⁸⁾이었다.

習字教本으로서는 千字文도 썼었다.⁹⁾ 千字文의 글씨가 큰 것은 이 때문이다. 千字文類의 識字教本이 習字教本을 겸한 실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識字教本의 한 가지인 訓蒙字會가 처음에 活字本으로 간행되었다가 「木版本으로 바뀐 理由의 하나」¹⁰⁾가 이 점에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紅字로 影寫(종이를 대고 비치는 字畫을 그리는 것)를 하다가 나중에는 臨書(書帖을 베껴 쓰는 것)를 하는데, 每日 이렇게 해서 練習을 오래 계속하면, 자연히 붓 놀리는 것이 나는 것 같고, 조금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¹¹⁾고 했다.

4) 陳東原, 中國教育史 p.429

5) 入私塾, 由教師用硃筆開一紅影本, 教兒童執筆在上填黑, 迨後則用墨筆開黑影本, 令他們以白紙蒙上, 照樣寫就。(陳青之, 中國教育史 p.478)

6) 初習字者, 率須描紅, 今坊間, 尚傳有小學習字帖之「上大人 孔夫子 化三千 七十士」, 此種字範, 在宋代即已通行. 在清末, 尚甚流行. 蓋以筆畫少易學習也。(王鳳喈, 中國教育史 p.165)

7) 陳青之, 中國教育史 p.427

8) 陳東原, 前揭書 p.429

9) 兒童習字, 宜倣宋人教小兒習字法, 先令兒童影寫趙子昂大字千字文. 年齡稍長, 再令習智永千字文。(陳青之, 中國教育史 p.500)

10) 安秉禧, 新增類合解題 註 16.

11) 初爲影寫, 後乃臨寫. 每日如此, 練習久了, 自然運筆如飛, 不至走樣。(陳青之, 前揭書 p.500)

2. 書寫의 基礎

順菴 安鼎福은 類書의 글을 引用하여 글씨는 뼈대가 서야 하지, 뼈대가 서지 않으면 살이 붙을 데가 없다고 했다.

類書曰, 初學宜先筋骨, 筋骨未立, 肉何取依.¹²⁾

흐늘적흐늘적하는 글씨를 배격한 것이다.

李裕元은 글씨의 畫에는 生畫과 熟畫이 있는데, 生畫을 세우지 않고 먼저 熟畫을 일삼으면, 나무를 뛰어넘어서 배를 타드는 것과 같아, 玄妙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寫字有生畫, 又有熟畫, 未立生畫, 先事熟畫, 是越津乘船, 其何能利泊彼岸, 入乎玄妙之門哉.¹³⁾

붓을 쥐는 네 가지 要訣에 「虛圓正緊」이 있다. 「虛」는 손가락의 중심이 손바닥으로 가까와지지 않게 함이요, 「圓」은 손등을 둥글게 함이며, 「正」은 붓대를 곧바로 세우는 것이요, 「緊」은 손가락을 붓에 꽉 붙이는 것을 말한다.

在學塾……良好教師, 亦向學生, 講把筆四要, 即「虛圓正緊」. 虛謂手指心不近掌, 圓謂手背須圓, 正謂筆管正直, 緊謂手指貼筆緊實.¹⁴⁾

글자의 모양은 그 글자의 됴됨이에 따라 달라야 한다. 東字는 길고 西字는 짧으며, 口字는 작고 體字는 크며, 朋字는 삐딱하고 黨字는 곧바르며 千字는 성기고 萬字는 뻑뻑하니, 획이 많은 것은 훌쩍하게 쓸 것이요, 획이 적은 것은 통통하게 쓸 것이다.

類書曰, 字體不能齊一, 如東字之長, 西字之短, 口字之小, 體字之大, 朋字之斜, 黨字之正, 千字之疎, 萬字之密, 劃多者宜瘦, 劃小者宜肥.¹⁵⁾

12) 順菴全書下, 下學指南 p.694

13) 李裕元, 林下筆記 卷35, 芬荔新志 p.868

14) 陳東原, 前揭書 p.429

15) 順菴全書下, 下學指南 p.694

글씨는 종이를 아껴서는 안 되고, 모름지기 크게 쓰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작은 글씨로 손과 팔이 굳어지면, 뒷날 조금만 큰 글자라도 쓰지를 못하게 된다.

訓蒙法曰, 寫字不得惜紙, 須令大寫. 若寫小字拘定手腕, 長後稍大字寫不得.¹⁶⁾

글씨를 쓸 때엔 반드시 자세하게 글씨본을 보아,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凡寫文字, 須要仔細看本, 不可差誤.¹⁷⁾

3. 寫字 心的態度

글씨는 品格이 있게 써야 한다. 그러므로 글은 形容을 귀히 여기고, 글씨는 優雅함을 귀히 여긴다고 했다.

文貴形容, 書貴雅.¹⁸⁾

먹을 갈 때 칩을 뺏아서 갈지 말 것이며, 붓대를 물지 말 것이요, 종이는 비꾸로 자르지 말 것이며, 남의 집에 가서는 남의 종이나 붓을 어지럽히거나 더럽히지 말 것이요, 만약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主人의 허락을 얻어 쓸 것이며, 쓰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놓도록 하여 조금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客이 혹 종이나 붓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아까와하는 빛을 보여서는 안 된다.

勿以涎磨墨, 勿嚙筆柄, 剪紙勿斜仄, 入人家勿亂污人紙筆, 若有用必聽主人備給, 寫訖必安置舊處, 毋敢少違. 客或亂污紙筆, 我則不可少示慳惜之色.¹⁹⁾

글씨는 心氣가 바르고 平穩해야 하니,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붓이 비꾸로 나가고 氣分이 平穩하지 않으면 글씨가 반드시 삐딱해지는 법이다.

16) 全書 p.672

17) 童蒙須知, 讀書寫文字 第四.

18)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五十一 耳口目心書 p.243

19) 李德懋, 士小節, 士典 p.369

類書曰，凡書在心正氣和，心不正則筆欹斜，氣不和書必顛仆。²⁰⁾

鄭圃隱은 「寫字」라는 詩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心專妍好翻成惑，氣欲縱橫更入邪，不落兩邊傳妙訣，毫端寫出活龍蛇。²¹⁾

마음은 오로지 글씨를 곱게 잘 쓰려 했다가도 자칫 疑惑을 일으키고, 氣分은 縱橫無盡하게 써 보겠다 했다가도 다시 간사한 데로 빠지기 쉽다. 만약 이 의혹과 간사함의 두 쪽에 빠져들지 말고 妙訣을 傳한다면, 붓끝에서 活氣찬 龍蛇와 같은 석직한 글씨를 써 낼 수 있으리라.

글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마음이 다른데로 쏠리지 않도록 할 것이요, 마음의 統一만 이루어지면 龍蛇飛騰하는 힘찬 글씨가 찍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秋史가 金晚齋의 청에 따라 尙古堂 三字를 쓸 때에 종이를 펴 놓고 數食頃이 되도록 붓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윽고 글씨를 끝내고서는 땀을 뿌리고 붓을 던지면서 ‘小心한 사람이 써 달라는 것이니 不得不 小心스레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金晚齋嘗求尙古堂三字於秋史，秋史展紙數食頃，不得下筆，其畢書，揮汗投筆，曰小心人所求，不得不小心書之。²²⁾

秋史같은 名筆이라도 相對方에 따라 마음씀이 그렇게 심각해진 것이다. 金晚齋는 金世均(1812~1879)으로 高宗때 吏曹判書를 지낸 이다.

三國史記 金生 列傳에 보면, 金生은 八十이 넘도록 글씨를 계속 써서 隸書行草書가 다 入神했는데, 지금도 往往 그 眞蹟을 볼 수가 있어 배우는 이들이 죽 보배로 여겨왔다. 高麗의 名筆 洪灌이란 이가 宋 徽宗 때에 進奉使를 따라 宋에 갔을 때 그쪽 代表에게 金生의 行草書 一卷을 보였더니 이것이 王羲之의 手書가 아니냐고 놀라, 洪灌이 累次 新羅人 金生의 글씨라고 해도 終是 믿질 않았을 만큼, 金生의 글씨는 훌륭했었다는 것이다.

金生，父母微，不知其世系，生於景雲二年，自幼能書，平生不攻他藝，年踰八十，猶

20) 順菴，下學指南 p.694

21) 圃隱先生集 卷二，詩：寫字。

22) 李裕元，前揭書 卷26，春明逸事二 秋史最慎字書

操筆不休，隸書行草書皆入神，至今往往有真蹟，學者傳寶之。崇寧中，學士洪灌隨進奉使入宋，館於汴京。時翰林待詔楊球，李革奉帝勅至館，書圓族。洪灌以金生行草一卷示之。二人大駭曰，不圖今日得見王右軍手書。洪灌曰，非是，此乃新羅人金生所書也。二人笑曰，天下除右軍焉，有妙筆如此哉。洪灌屢言之，終不信。²³⁾

韓石峯은 朝鮮朝 四大名筆 중의 第一人으로 꼽히는데 그는 재주와 學問은 높지 못했으나 계속적인 노력의 奏效로, 비록 옛사람의 畫法은 몰랐어도 自然히 서로 맞게 되었는데, 지체가 낮기 때문에 官寫程式에 머물렀다. 楷書가 가장 떨어지나 또한 筆力이 있어 볼 만한 것이 있고, 行書나 草書로서 得意한 경지에 이른 것은 雄壯하고 깊이가 있으며 質樸하고 健實하여 그 수준이 宋元의 名筆들과 견줄 만하다. 재주가 노력의 결과보다 나은 것은 安平大君이요, 노력의 결과가 재주를 뛰어넘은 이가 石峯이다. 石峯의 篤實한 노력에다 글을 깨쳐 일찌기 書道의 深奧한 경지에 들어가게 했던들 어찌 晉唐의 名筆들만 같지 못했으라는 것이다.

我朝筆法，以安平自庵蓬萊石峯爲四大家，定論以石峯爲國朝第一。石峯才學未高，而積習功到。雖不知古人書法，亦有自然相合，以居地微賤之故，局於官寫程式。眞書尤鄙陋，而亦有筆力可觀者，至於行草得意處，雄深質健高出宋元可以無間矣。才勝於功者安平也，功過於才者景洪也，二家之所成就可見矣。惜哉，使以景洪之篤，假之學而早悟入道之門，亦何渠不若晉唐哉。筆訣圓嶠²⁴⁾

退溪는 日常時 未明에 일어나서 冠帶를 갖추고 곳곳이 端坐하여 終日 觀書하다가 잠잠히 앉은 채 思索도 하고, 붓을 들어 글씨쓰기도 하여, 詩句를 읊조리기도 하는데, 世俗的인 취미엔 마음 써 본 일이 없으며, 家事도 一切 不問에 부쳐, 여러번 끼니가 간 데 없어도 근심하지 않았단 한다.

平居未明，而起冠帶出就書室，斂形端坐，不少跛倚，終日觀書，或默坐思索，或取筆習書，或吟咏詩句，自世俗所好，未嘗一經於心，家事一切不問，雖至屢空，亦不卹也。錄文²⁵⁾

大學가 趣味的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들볼 수 있다.

23)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 第八

24) 然黎室記述 卷18. 宣祖朝故事本末, 宣祖朝名臣, 韓濩 p.120

25) 退陶先生言行通錄 卷3, 類編 行實第二 p.664

4. 字畫 楷正

글씨는 楷字로 또박또박 쓸 것이요, 草書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到處에서 강조하고 있다.

凡習字必精整方楷，不可浮率，雜以草書，始動終怠。²⁶⁾

무릇 글씨는 반드시 자세하고 整頓되며 네모 반듯하게 또박또박 쓸 것이요, 건정건정 흘림 글씨를 섞거나 처음은 부지런히 쓰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朱熹는 글씨는 잘쓰고 못쓰는 것을 不問하고, 一筆一畫을 嚴正分明하게 쓸 것이요, 건정건정 갈겨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凡寫字，不問寫得巧拙如何，且要一筆一畫，嚴正分明，不可老草。²⁷⁾

그리하여 「字畫 楷正」을 座右銘으로 삼은 例도 있다.

張思叔座右銘曰，凡言語必忠信，凡行必篤敬，飲食必慎節，字畫必楷正。²⁸⁾

글씨는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端正하게 쓸 것이요, 되는 대로 갈겨 쓰지 말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멋대로 씬으로써 塞責을 한다면 平生 동안 글씨를 쓴다 하더라도 進陟이 없을 것이요, 붓과 먹 값만 虛費할 뿐 아니라 장차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괴로울 것이다.

幼童初學，寫字之時，執筆須要端正，切不可隨手亂畫。倘於始習之時，任意寫成，塞責了事，則雖窮年習字，終無進境，不特費筆墨之資，將來亦復徒自苦耳。²⁹⁾

退溪는 少時적부터 글씨는 반드시 楷正하게 써서 비록 科文雜書를 둘러가며 베끼는 데도 模糊하게 쓰는 일이 드물었다. 일찌기 그의 孫子 安道에게 주는 글에서 「모든 일은 마땅히 조심스레 해야 하는데, 아제 네가 金而精에

26) 李德悉，士小節 童規 p.418

27) 童蒙須知，讀書寫文字 第四

28) 小學 卷5，嘉言 第五 廣敬身

29) 初學階梯首集 第49 寫字宜端正

게 보낸 편지를 보니 큰 글씨로 휘갈겨 썼으니 앞으로 조심해서 거칠고 理性을 잃은 態度를 짓지 말지라.]라고 했다.

退溪自少時，書字之楷正，雖傳鈔科文雜書，鮮有胡寫。嘗與其孫安道書曰，凡事當謹慎，今見汝寄金而精書，大字亂草，慎勿爲麤狂之態。³⁰⁾

元代의 科擧規定 속에 모든 謄錄人(科擧에서 筆蹟에 의한 不正을 막기 위하여 試驗答案을 베껴서 探點者에게 보내는 일을 맡은 사람)의 글씨가 조심성이 없어 錯誤가 일어나 채점에 지장이 생기면 嚴重하게 責任을 묻고 罰을 科했다.

諸謄錄人，書寫不慎，及錯誤，有礙考校，重示責罰。³¹⁾

朱子가 韓魏公書帖 跋文에서 말하기를 ‘張敬夫가 늘 이야기하기를 平常時에 接하는 王荊公의 글씨는 하나같이 몹시 바쁜 가운데 쓴 것 같으니, 공이 어떻게 그리 바쁜 일만 좇아다녔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것이 비록 戲言이긴 하지만 참으로 그의 病痛을 的中시킨 것이다. 이제 韓公의 글씨 솜씨를 보전대, 비록 親戚의 行列이 낮거나 어린이에게 주는 편지라도 다 端嚴謹重해서 단 하나도 行書나 草書의 태세가 없었다. 생각전대 그 마음속이 安靜되고 仔詳하며 溫和하여, 갑작스럽게 바쁠 때에도 조그만틈도 바쁜 뜻이 없어 보여, 荊公의 뒤숭스럽고 急迫한 것과 아주 相反된다.’고 했으니 편지는 잔잔한 일이나 사람의 德性에 相關됨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朱子跋韓魏公帖曰「張敬夫常言，平生所見王荊公書，皆如大忙中寫，不知公安得有如許忙事。此雖戲言，實中其病。今觀韓公書蹟，雖與親戚卑幼，亦皆端嚴謹重，未嘗一筆作行草勢。蓋其胸中，安靜詳密，雍容和豫，故無頃刻忙時，無纖芥忙意，與荊公之驟擾急迫，正相反也。書札細事，而於人之德性，其相關有如此者。³²⁾

한글 편지는 말을 分明하고 글자는 헝그럽고 整齊하게 쓸 것이요, 거칠게 휘 갈겨 무슨 소리인지 不分明한 말을 張皇하고 支離하게 늘어놓아 읽는 이로 하여금 싫증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30) 李裕元, 前揭書 卷八, 人日編 p.154

31) 陳東原, 前揭書 p.298

32) 順菴全書下, 下學指南 p.694

凡作諺書，語必明約，字必疎整，不可作荒草胡說，張皇支離，使人厭忌也。³³⁾

栗谷은 學校模範에서 ‘寫字必敬’이라고 했다. 退溪는 程明道가 글씨를 쓸 때엔 무척 敬虔한 마음으로 썼는데, 진실로 글자가 잘 되진 못 되진 다만 글씨를 경진하게 썼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리고 글씨의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그 才分과 工力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明道寫字時甚敬，固非要字好，亦非要字不好，但敬於寫字而已。字之工拙，隨其才分工力，而自有所就焉。³⁴⁾

楊雄은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니, 마음의 그림이기에 君子와 小人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고 했다.

楊雄曰 書心畫也，心畫形君子小人見矣。³⁵⁾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또박또박 정성들여 쓴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寫字 功效

鶴林玉露에 唐의 張參이란 이는 손수 九經을 베끼면서 매양 말하기를 讀書에는 寫書만 한 것이 없다고 했다. 당의 高宗은 손수 편지를 닦고, 두루 九經을 베꼈다. 또 일찌기 漢光武傳을 써서 執政 徐俯에게 내리면서, ‘卿이 朕에게 光武紀를 읽기를 권했는데, 朕은 열 번 읽는 것이 한 번 베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했노라.’ 하였다.

鶴林玉露，唐張參手寫九經，每言讀書不如寫書。高宗親灑宸翰，遍寫九經。又嘗御書漢光武傳，賜執政徐俯曰，卿勸朕讀光武紀，朕思讀十遍不如寫一遍。

現代人도 글을 베끼는 것이 學習에 몹시 도움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33) 李德懋，士小節 婦儀 p.402

34) 退溪先生自省錄 卷1, 書 答金惇叙

35) 順菴全書下, 下學指南 p.693

外國文을 吟味할 수 있게 되는 한 方法으로서, 筆寫를 勸獎받은 일이 있다. 자기 가 좋아하는 文章을, 한 節이고 한 章이고, 참을성있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베끼는 동안에 獨逸文의 構造, 그 意味의 紐彙는 언젠가도 모르게 懂得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일맞동안 해 본 바, 확실히 有效한 한 方法이라고 알았다.³⁶⁾

글씨를 잘 씀으로 해서 임금에게 인정을 받은 예가 있다.

朝鮮朝 成宗 때에 임금이 문기를 ‘이 疏는 누가 쓴 것인고?’ ‘士人 姜信입니다.’ 급히 불러 楷書와 草書를 써서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楷書는 이 사람과 견줄 이가 없도다.’ 하고 造紙署 別坐를 除授했다. 여러 차례 불러서 보고 쓸 만한 사람임을 알았다. 數年 사이에 계급을 뛰어 건너 判決事가 되었으나 역시 그 職을 잘 감당했다. 成宗의 한 사람의 재주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서 쓰는 盛事는 가히 千古에 卓越했다고 하겠다. 姜信은 僉正 姜韓의 祖父로 집이 陌格署洞에 있다. 나는 丈人이 모은 옛 書帖 가운데서 姜信의 글씨를 많이 볼 수 있었다. 楷書 草書가 각기 그 妙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鰲城은 역시 ‘楷書가 草書보다 낫다.’고 했다는 것이다.

上問曰, 此疏誰所寫也. 曰, 士人姜信也, 亟召之, 使寫楷書草書而進. 上曰, 楷書當無此人比, 遂授造紙署別坐. 累召見之, 且知其爲可用, 數年間躋至判決事, 亦能稱職. 成廟一才不遺之盛, 可謂卓越千古也. 姜信乃僉正姜公韓之祖, 家在陌格署洞, 余於丈人所集古書帖中多見之. 楷書草書, 各臻其妙, 鰲城亦言, 楷書勝草書云.³⁷⁾

成宗이 글씨 잘 쓰는 文士를 特待했다는 것은 燃藜室記述에도 朴元齡의 事實이 擧論돼 있다.

成統道儒生朴元齡善書, 當代爲人書疏, 上下問誰所寫, 以元齡對, 命召于政院, 賜酒肉, 出簡筒使書其面以入, 仍以御書屏風賜之. 雖小藝, 其嘉獎如此. 雜記筆苑³⁸⁾

글씨를 專門으로 쓰는 官員을 寫字官이라 했다. 朝鮮朝 初期까지만 해도 寫字官을 따로 두지 않고 文官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겸했었다. 그러나 後代로 내려가면서 文臣 가운데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드물어졌으니 그러기에 宣祖 때부터는 선비이건 庶人이건 莫論하고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는

36) 小泉信三, 讀書論 p. p.40-41

37) 朴東亮, 寄齋雜記一(大東野乘 卷51)

38) 燃藜室記述 卷6, 成宗朝故事本末 成宗 p.22

軍職을 주어 官服을 입고 常勤하게 했는데, 李海龍이나 韓濩가 그 始初에 해당한다.

國初無寫字官, 而文官中善書者爲之. 後以文臣善書者鮮少, 故自宣祖朝無論士庶, 善書者付軍職冠帶常仕, 李海龍韓濩即其始也.³⁹⁾

高麗때에는 元나라에서 寫經僧을 여러 차례 구해서 데려갔고, 金字經을 쓰게 한 事實도 있다.

(忠烈王 16年) 夏四月遣寫經僧六十五人如元.⁴⁰⁾

(忠烈王 16年 8月) 遣將軍趙璪, 押寫經僧如元.⁴¹⁾

(忠烈王 28年) 夏四月元遣來徵寫經僧.⁴²⁾

(忠烈王 16年 3月) 帝以寫金字經, 徵善書僧. 於是遣僧三十五人如元.⁴³⁾

以上은 元의 요구에 따라 寫字僧을 元으로 보낸 事實이나, 이번에는 元에서 高麗로 와서 金字藏經을 쓰게 한 사실이 있다. 忠宣王 2年 6월에 元이 宦者 方臣祐(高麗人)를 보내어 金字藏經을 배끼는 일을 감독하게 하고, 元의 皇太后가 金薄 六十餘錠을 보내왔다. 臣祐가 僧俗 300人을 旻天寺에 모아 베풀었다.

元遣宦者方臣祐來監 書金字藏經, 皇太后送金薄六十餘錠. 臣祐聚僧俗三百人于旻天寺寫之.⁴⁴⁾

옛 사람이 글씨를 얼마나 尊重했는가, 또 글씨의 眞價를 모르는 官員이 얼마나 무리를 했는가의 例話를 들어보자.

嘗見蘭亭小記, 唐太宗欲得羲之眞筆, 聞有南州僧深藏不出, 特遣御史以秘計得來. 以天子之威, 求一小紙書於山僧, 乃一縣官事, 而寧以計得, 不以威脅者, 必以筆蹟乃翰墨之具, 山僧亦方外之人故. 萬機之暇作文戲, 眞盛德事也. 若後世, 則山僧豈敢藏秘, 必有懷璧之災矣. 松都人韓濩之子若弟, 得藏其筆蹟者, 皆爲一二府官所奪取, 隻字片紙, 無復保存. 其子每對人悲憤, 可勝嘆哉.⁴⁵⁾

39) 李裕元, 前揭書 卷24, 文獻指掌編 14

40, 41) 高麗史節要 卷21

42) 全書 卷22

43) 全書 卷21

44) (高麗史節要 卷23 忠宣王 2年 6月) 같은 내용이 高麗史 卷 122, 列傳 第35 方臣祐條에도 나타나 있다.

45) 李德潤, 竹窓閑話(大東野乘 13冊 卷 71 p.p.347-348.

筆者인 李德洞이 일찌기 蘭亭小記를 보매 唐太宗이 王羲之의 眞筆을 얻으려 하던 참에 南州의 僧이 깊이 간직하고 내놓길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특히 御史를 보내어 秘計로써 얻어 왔다고 했다. 天子의 威勢로 한낱 작은 종이쪽지의 글씨를 얻어오는 것은 한낱 縣官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늘 어찌 秘計로써 얻어오고 威脅으로써 하지 않았는가 하면, 아마도 筆蹟은 翰墨으로서 갖추는 것이요, 山僧은 俗世를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政務의 바쁜 거름에 文戲를 지으니 참으로 聖德之事라 하겠다. 後世라면 山僧이 어찌 감히 秘藏할 수 있으랴. 아마도 匹夫는 寶玉을 갖는 그 자체가 罪가 된다는 그런 懷璧之災가 있었을 것이다. 松都 사람 韓濩의 子弟가 그 筆蹟을 얻어 간직한 것은 다 한두 府官에 의해 奪取되어 한 字의 글씨와 한 조각의 종이도 다시는 保存하지 못하게 되어, 그 아들이 매양 사람을 대해서는 이 사실을 悲憤해 했으니, 참으로 한탄할 일이다.

맺 음 말

우리는 위에서 先人들의 글씨 지도에 대하여 편의상 ①私塾에서의 習字, ②書寫의 基礎, ③寫字 心的態度, ④書字 楷正, ⑤寫字 功效의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例話 紹介를 中心으로 서술해 왔다. ②, ③, ④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心的 態度에 관련되는 것이고 보면, 옛 사람들이 教育에서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소중스럽게 강조해 왔던가를 역력히 알 수 있다.

글씨는 修養이요, 人格을 端의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서부터 訓練이 써어야지, 진정진정 잘못 습관지어지면 고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글씨는 우선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楷正하게 써야 하며 優雅한 品格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초가 튼튼히 잡히면 아무리 速度를 빨리해도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先人들의 이야기나 實踐例話를 통하여 的確히 파악하고, 先人들의 故智를 오늘날의 글씨 교육에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가 다 함께 살려보기를 冀願한다.

參 考 文 獻

<歷史書>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文 集>

退溪全書

栗谷全書

順菴全書

燃藜室記述

青莊館全書

林下筆記(李裕元)

大東野乘

<著 書>

陳東原,「中國教育史」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初版 1936,臺二版 1970.

陳青之,「中國教育史」臺灣商務印書館,四版,1971.

王鳳喈,「中國教育史」國立編譯館,十版,1972.

小泉信三,讀書論,岩波書店,1972,第29刷.

<資 料>

初學階梯 首集

小學

童蒙須知

新增類合(東洋學叢書·第二輯,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1972.